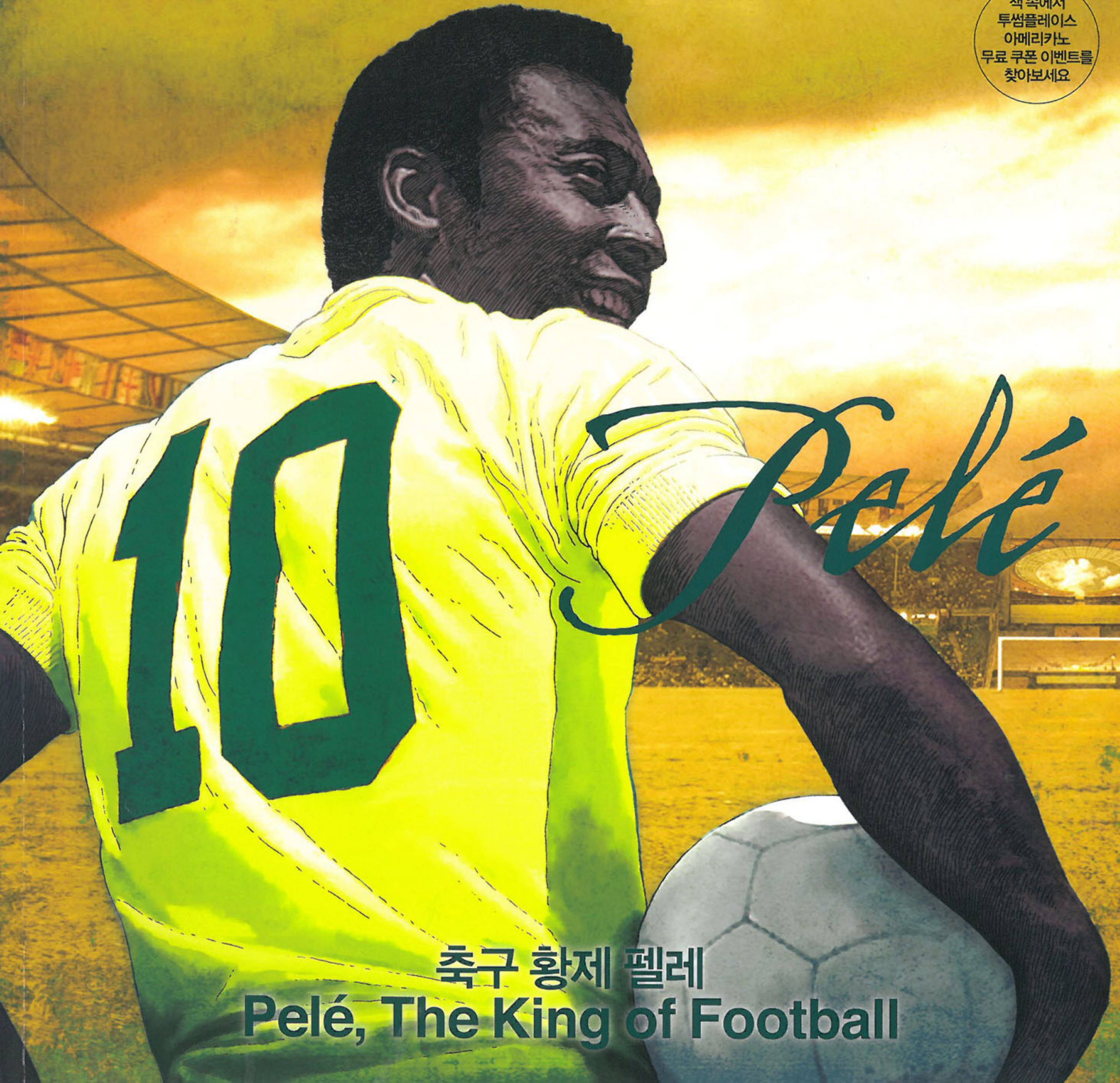


# beyond

The In-flight Entertainment Magazine of **KOREAN AIR**

June 2015 Vol. 105

책 속에서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이벤트를  
찾아보세요



축구 황제 펠레  
**Pelé, The King of Football**

애니시 커푸어의 광활한 우주

# ANISH KAPOOR'S GREAT UNIVERSE

조각가 애니시 커푸어가 창조한 작품들은 그 강렬한 색감과 추상적인 형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없다. 사라지고 변형되는 물질, 빈 공간, 빛과 어둠 등으로 구성한 그의 예술세계는 마치 우주처럼 넓고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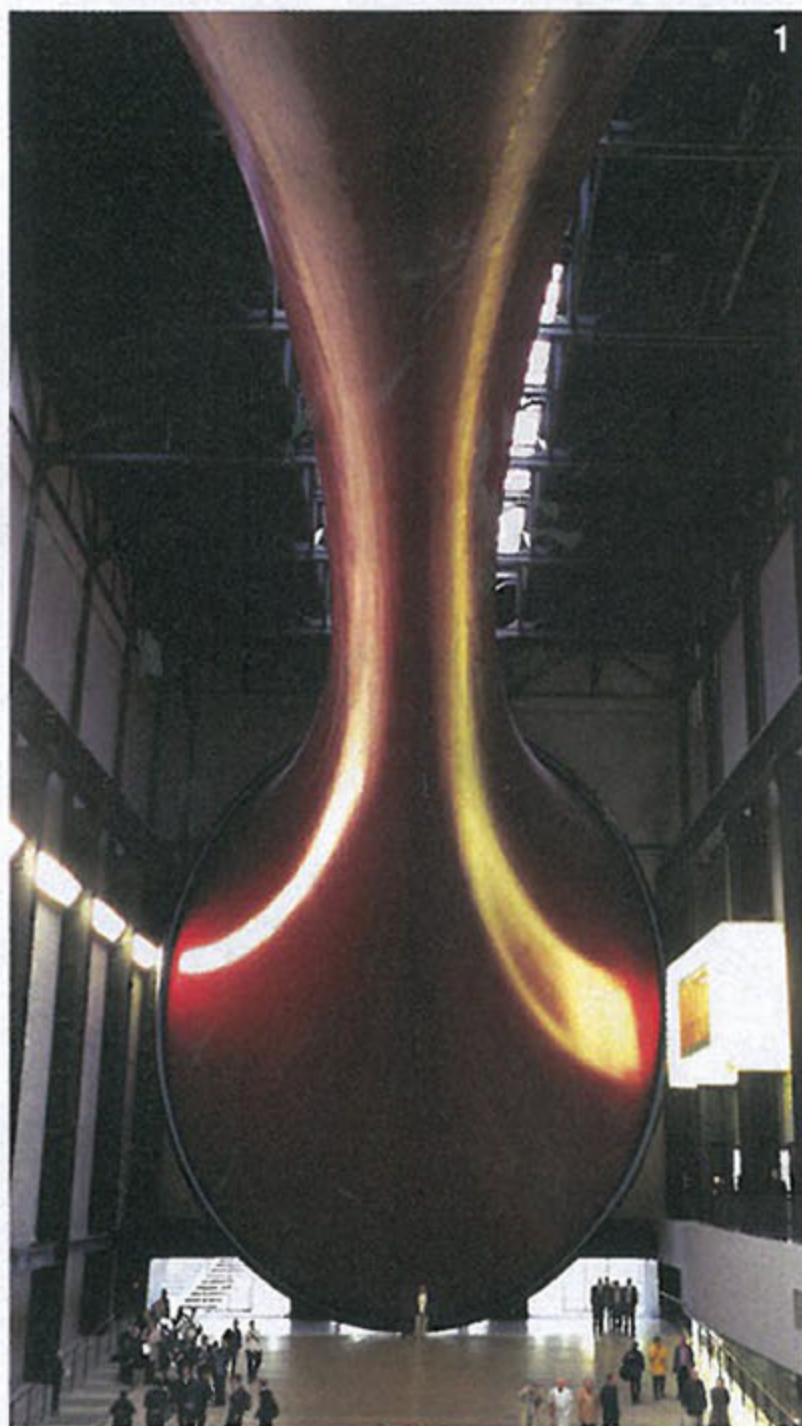
Discussions about sculptor Anish Kapoor's works can't be limited to strong colors and abstract figures alone. His art world, which encompasses disappearing and changing materials, empty spaces, light and dark, is as deep as the universe itself.

by 원영인 Won Young-in

1917년 마르셀 뒤샹이 갤러리에 남성 소변기를 전시한 이후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미술에 대한 개념을 뒤집는 도전을 해왔다. 이제 고상한 갤러리에서 동물의 사체나 기성품이 버젓이 작품으로 등장해도 크게 놀라는 이는 없다. 되레 휴식을 위한 의자마저 작품이 아닐까 의심할 지경이다. 예술의 경계는 점점 구분이 어려워지고 작품이 지닌 의미는 모호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애니시 커푸어는 뒤샹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미술 트렌드와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에게 예술은 '사물이 지닌 시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은유로 가득 찬 그의 작품들은 경이롭고 신비하다.

**2012년 올림픽을** 앞두고 런던 시는 에펠탑에 대적할 만한 랜드마크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115미터 이상 높이의 타워를 짓는 데 380억 원(2270만 파운드)이 넘는 시공비가 들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완성된 애니시 커푸어의 <아르셀로미탈 오빗>은 실로 괴상했다. 나선형 타워를 붉은 철근으로 얼기설기 감싼 모습이 마치 내장과 혈관을 드러낸 우주 생명체 같았다. 이를 두고 '포크로 돌돌 만 스파게티, 무너져 내린 롤러코스터' 등의 혹평과 '건축과 예술을 재정립하는 혁신'이라는 찬사가 동시에 쏟아졌다.

뜨거운 논란처럼 도시 속에 파고든 그의 조형물은 기묘한 감정을 일으킨다. 철근을 자유자재로 구부린 듯한 형체는 발전된 기술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거대한 존재가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규칙이 아예 없는 듯한 타워의 구조는 어느 방향에서도 그 형상이 같지 않고, 멀리서 보이는 모습마저 무질서해 정돈된 주변마저 혼돈으로 흔들어놓는다. 신에게 도전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바벨탑'이 연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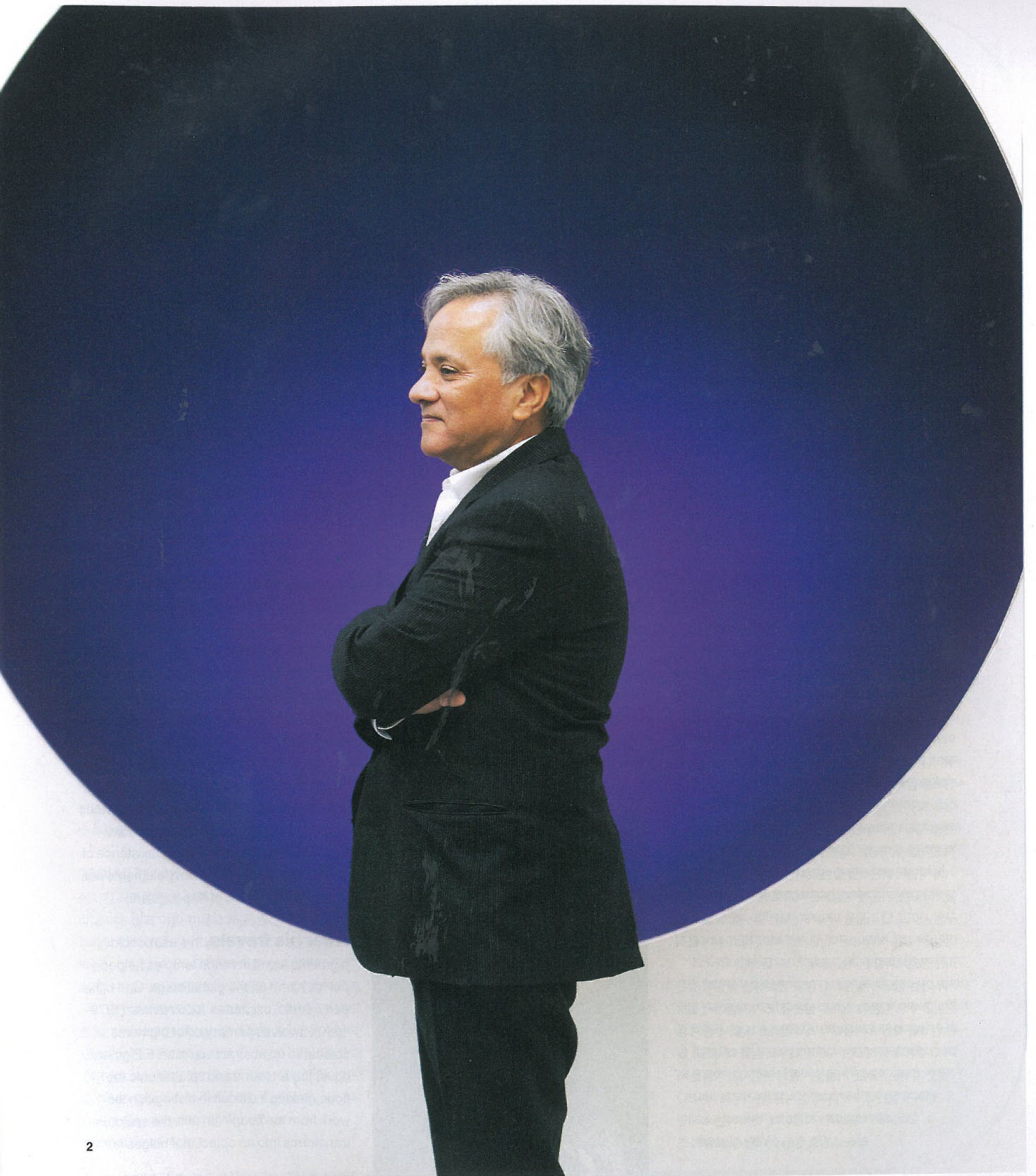


**A**fter Marcel Duchamp exhibited a urinal in a gallery in 1917, artists have long challenged the notions of what art is. It's no longer a shock to see an animal corpse or ready-made articles exhibited in an upscale gallery. The artistic realm has become more vague than ever, and the meaning is equally unclear or nonexistent altogether. One of the

most well-known artists today, Anish Kapoor, is influenced by Duchamp but has chosen a path different from today's art trends. For him, art is the result of finding a poetic meaning in objects. Full of metaphors about the world, his sculptures and public art displays are wonderful and mysterious.

**Just before** the 2012 Olympics, the city of London decided to build a landmark as grand as the Eiffel Tower—a tower that would be over 115 meters high and costing around £22.7 million to make. However, the structure, the *ArcelorMittal Orbit*, although created with great expectations, appeared awkward to many—its spiral tower wrapped in red iron domes is likened to an alien with intestines and veins. It was described as spaghetti wrapped in a fork or a fallen roller coaster by some, yet praised as a building that redefines architecture and art by others. Like these heated debates, Kapoor's sculpture that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fabric of city life elicits strange emotions. The idea behind the building, which reveals a carefree approach with iron, looks like something that

1 2002년 테이트모던 설치 작품 <마르시아스> 2 2012년 <투 블루스> 앞에 선 애니시 커푸어  
1 *Marsyas* at Tate Modern London, 2002 2 Anish Kapoor in front of *Two Blues*, 2012



1 붉은색의 은밀한 부분을 반영하기, 1981 2 2011년 베니스 산 조르조 바실리카에 설치한 (승천)

1 To Reflect an Intimate Part of the Red, 1981 2 Ascension at Basilica di San Giorgio in Venice, 2011

거대한 스케일과 고정적이지 않은 형태, 강렬한 색감으로 완성된 애니시 커푸어의 작품들에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난 커푸어는 유년기를 인도와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보냈고, 영국으로 이주해 미술을 공부한 후 현재까지 영국을 본거지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술 학도 시절 그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이는 심리학자 칼 융과 요셉 보이스, 마르셀 뒤샹과 같은 개념미술 작가들이었다. 이 시기 그는 인간 원형의 이미지와 초월적 세계, 사물에 내재된 신화 등에 심취했는데, 학업을 마치고 떠난 모국 인도 여행은 그의 예술세계가 확고해진 계기였다. "스스로를 인도 예술가로 규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다른 서구의 아티스트들과 나 사이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늘 궁금해했던 것들이 바로 그곳 인도에 있습니다." 커푸어가 한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상반되고 모순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인도인의 삶과 철학은 이후 그의 작업의 근간이 된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힌두교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료를 사용해 작가로서의 이름을 알렸다. 초기 작업 〈1000개의 이름〉(1979~1980) 시리즈는 추상적인 형태의 조각 위에 원색의 안료를 뿌린 작품이다. 안료는 조각을 뒤덮고 바닥에까지 흘러지는데, 이로 인해 어디부터가 조각이고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모호해진다. 이와 함께 눈앞에 보이는 형상은 바닥 아래에서부터 튀어나온 것의 일부로 변화하고,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전체를 상상하게 한다.

이후 '보이는 것 너머'에 대한 그의 탐구는 계속됐다. 그는 조각의 내부와 텅 빈 공간, 깊은 어둠을 활용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공간의 경험을 선보였다. 언뜻 보기에 벽면에 붉은색을 칠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몸 너의 몸〉(1999)은 가운데가 검붉은 색으로 움푹 파여 있다. 그 구멍 사이로 난 어둠을 따라가다 보면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단단한 벽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관객을 끌어당기는 듯하다.

커푸어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는 물질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작품의 소재로 삼는다. 초기 작품에서 활용한 안료를 포함해 거울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수증기 등이 그것이다. 특히 그는 1990년대부터 상을 왜곡하고 빛을 반사하는 휘어진 거울을 사용해 관람자가 작품을 체험하게 했는데, 시카고에 설치된 〈클라우드 게이트〉(2004)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거대한 콩 모양의 조



a superhuman designed. The tower doesn't adhere to any rules, nor does it resemble preexisting designs. From afar, it looks disorderly and brings chaos in viewing the area. In a way, it reminds the viewer of the *Tower of Babel*, a biblical story, in that it disrupts the world and challenges God. Kapoor's works, encompassing large scales, a seemingly fluid form and strong colors, have both Western and Eastern influences in them. Born in Mumbai, India, Kapoor spent his early life in India and at a kibbutz in Israel. He moved to Britain

to study art, where he is now based, and shows his work internationally. During his school days, he was influenced by psychologist Carl Jung and conceptual artists Joseph Beuys and Marcel Duchamp. He was deeply interested in images of the original human form, the transcendental world and mythology of objects. His artistic world became more evident when he traveled through India after finishing his education. Through interviews, he has said that although he doesn't like to define himself as an "Indian artist," he fel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him and Western-born artists, and that he has always been curious about what has already existed in India. The Indian philosophy of the coexistence of contrasting and contradictory elements has been the foundation of Kapoor's art.

**After his travels,** his use of color pigments found in Hindu temples helped put his name on the global stage. One of his early works, the series *1000 Names* (1979-1980), involves primary color pigments splattered on abstract sculptures. Pigments cover the art forms and splatter onto the floor,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work from the floor. With this, the sculpture transforms into an object that bulges out



2007년 런던 하이드 파크에 설치한 <비물질(침탑)>  
*Non Object (Spire)* at Hyde Park in London, 2007

형물이 도시와 하늘, 행인을 비춰낸다. 관람자의 움직임과 시간에 따라 표면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변하며, 절대적인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사라진다. 한편, 2003년 베니스의 오래된 성당 산 조르조 바실리카에서 천장으로 솟구친 연기는 관람자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출품작 <승천>으로, 분명 존재하지만 그 흔적조차 남지 않는 수증기를 통해 예수가 승천하는 순간처럼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예술가는** 오브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만듭니다. 정확히 말해서 사물에 이미 존재하는 신화를 읽어내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인간 삶의 원형이 담겨 있다. 커푸어는 동서양의 신화에 담긴 인간의 내면과 한계, 깨달음들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 이를 구현해내는 데 있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규모’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사물은 인간 외의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눈앞에 일부만 보일 정도가 되면 상상 속에서 전체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지고, 비밀스러워지며,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2002년 런던 테이트모던 전시에서 커푸어는 150미터 길이의 거대한 구조물로 터빈 홀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품 <마르시아스>다. 아폴론에게 피리 연주로 도전한 마르시아스는 내기에서 진 벌로 산 채로 가죽이 벗겨졌다. 작품은 마치 벗겨진 살갓처럼 온통 붉고 매끈한 비닐이 공간 이쪽과 저쪽을 길게 가로지르고, 양끝은 천장까지 닿을 크기의 나팔 모양이다. 나팔 안을 들여다보면, 어둠이 끝없이 펼쳐져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2011년 파리 그랑팔레에서 선보인 <리바이어던> 역시 공간 전체를 붉은 비닐 시트로 뒤덮어 성경에 나오는 괴물의 뱃속을 탐험하듯 강렬한 경험을 선사했다.

**30여 년간** 세계 유명 미술관과 갤러리,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을 통해 커푸어가 펼쳐온 개념들은 지극히 방대하다. 빛과 어둠, 비움과 채움, 혼돈과 질서, 실재와 부재와 같이 대립되는 것들이 공존하고 순환하는 그의 작품은 인간을 넘어서 우주의 이치를 탐구한다. 애니시 커푸어의 새로운 도전이 6월부터 10월까지 베르사유 궁전에서 펼쳐진다. 베르사유는 2008년을 시작으로 매년 한 차례 현대미술가를 초대해 개인전을 여는데, 작년에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 이우환이 이 인공정원에 ‘비움’을 더해 새로운 풍경을 보여줬다. 극치의 화려함으로 권력과 물질의 상징인 베르사유, 그곳에 애니시 커푸어가 또 한번 거대한 우주를 담아낸다. ■

원영인은 <비온드>의 에디터다.



from the bottom of the floor, evoking a grand whole that's not revealed.

After this, his works have continued to dive into this notion of “things beyond vision.” His sculptures allow for an experience of transcending the physical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using the empty interior of a sculpture or a deep darkness. *My Body Your Body* (1999), for example, looks like a dark red painting. Yet, within its center lies a large hole that draws you in, as if to swallow you.

**Kapoor's major works** forgo uniform figures and involve changing materials. He said that he was interested in the idea of the immaterial becoming an object. The color pigments used in his earlier works, as well as mirrors, stainless steel and vapors, were all chosen to realize this idea. Since the 1990s, he has used bent mirrors that deform figures, reflect light and mix with the surroundings. *Cloud Gate* (2004), a stainless steel, bean-shaped sculpture uses mirrors to reflect the city, sky and passersby. It is ever changing, depending on the movements of the passerby over time. Here, absolute space and time disappears.

His Venice Biennale featured *Ascension* (2003), was comprised of a wisp of smoke ascending from the floor to a large extractor fan set in the ceiling of the Basilica di San Giorgio, an ancient church in Venice. The

smoke, creating a random pillar in the air, would then vanish. The work evoked a mysterious sensation, even awe, as if witnessing Christ ascending into the sky.

**“Artists don't make objects.** Artists make mythologies,” Kapoor said. Ancient tales tell the stories of humans and he allows viewers to directly experience his inner world and limitations, like in Eastern and Western mythology. For Kapoor, central to realizing this is “scale.” Grand scales that transcend expectations evoke images of existences beyond the human experience. When you can only see a part of the sculpture, it lets you imagine something much bigger, more mysterious and even threatening.

During the 2002 London Tate Modern exhibition, Kapoor filled the entire Turbine Hall with a 150 meter-long sculpture. *Marsyas* takes its motive from the ancient Greek mythology, in which Marsyas gets punished by being skinned alive after losing a musical bet with Apollo. Like a body stripped of its skin, the work is red and smooth, made with a PVC membrane stretching along the hall and reaching the ceiling, and shaped like a French horn. If you look inside, a threatening darkness stretches endlessly.

**For 30 years,** Kapoor has delved into a vast array of themes throughout different museums, galleries, and public exhibitions. His works, where light and darkness; emptiness and fullness; chaos and order; and existence and absence all merge and circulate, transcend the human experience and explore the order of the universe.

Kapoor's latest exhibition opens from June to October at the Palace of Versailles, which has invited a modern artist each year to open a personal exhibition. Last year, Korean artist Lee Ufan brought the concept of emptiness into the palace's perfectly symmetrical man-made garden. This year, Kapoor features a universe in the very space that symbolizes excessive luxury and power. ■

Won Young-in is an editor for *beyond*.